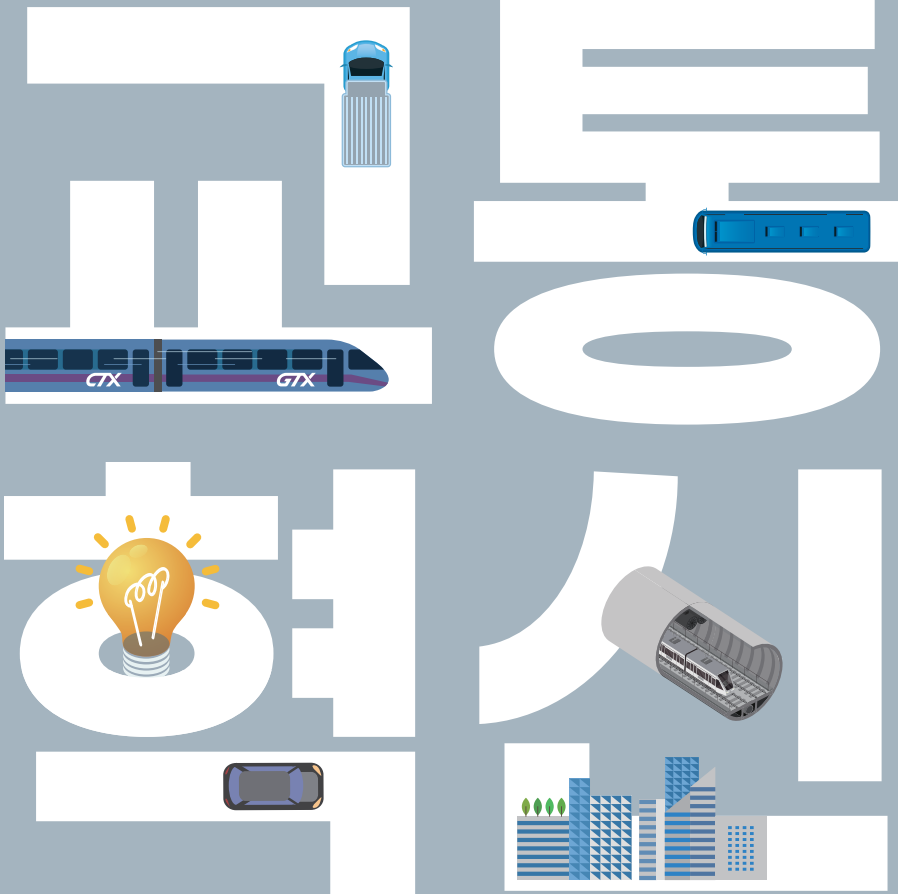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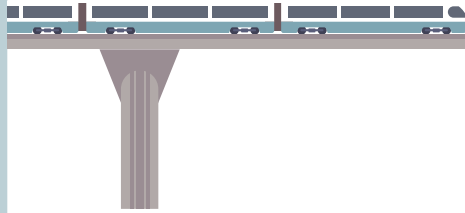


Special Topics

교통 분야 3대 혁신
이행 방안





- 002 **사론**
교통 3대 혁신 과제의 이행 방안

Special Topics

교통 분야 3대 혁신 이행 방안

- 006 **Topic 1**
성공적인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
- 014 **Topic 2**
신도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광역교통축 제도
- 020 **Topic 3**
국토·도시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철도 지하화의 의미와 과제
- 028 **Topic 4**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3대 교통혁신



월간 교통 통권 314호

발행일 매월 20일

발행인 오재학

편집위원장 유정복

편집위원 강동운, 강지원, 김거중, 김경택, 김규옥,
김나윤, 김도현, 김동호, 김명현, 김자인, 남호현, 박경아,
박준호, 박진서, 방수혁, 성홍모, 신영권, 신흥우, 우승국,
위정란, 윤석재, 이 호, 이재용, 이종훈, 이희원, 장소영,
조선아, 조아해, 조정우, 진광성(가나다 순)

간사 김지혜

기획 기획조정실

편집디자인 우공이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1 103호 (02)322-0355

배포문의 전화 (044)211-3029

팩스 (044)211-3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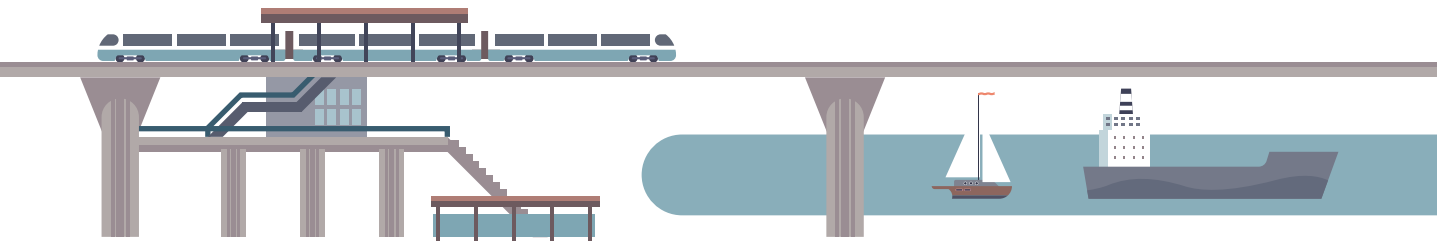
이메일 kotibook@koti.re.kr

보급가 5,000원

※ 월간 『교통』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Human-centered Transport

- 034 **사진으로 본 교통**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교통시설 답사
- 042 **KOTI가 만난 사람**
최준성 한국도로학회 회장
“친환경·속도·디지털 중심의 미래형 X-도로로 국민 삶을 더 행복하게”



Future Transport

- 049 KOTI NEWS**
‘베트남 교통부 차관 ITS 관련 방원 세미나’ 개최 외
- 052 통계로 본 교통·물류**
최근 5년간 운전행태 교통문화지수, 최근 5년간 보행행태 교통문화지수, 교통문화지수 순위
- 054 숨은 교통 찾기**
휠체어와 교통

Global Transport

- 058 안테나**
① 한국-베트남 교통 협력 : 스마트 모빌리티의 미래, 베트남 교통 발전을 위한 대화의 장 마련
② 한국교통연구원-해군본부 항공·우주 분야 간담회 개최
- 068 글로벌 교통 동향**
우리의 여행을 바꿔줄 다섯 가지 미래 교통수단
- 071 교통 관련 보도자료 중계**
보도자료를 통해 본 주요 교통뉴스

교통 SPOT

공항에 도착했는데 집에 두고 온 여권이 생각났다면?



“
친환경·속도·디지털
중심의 미래형
X-도로로
국민 삶을
더 행복하게
 ”



한국도로학회
 KOREAN SOCIETY OF ROAD ENGINEERS

최준성

한국도로학회 회장

한국도로학회는 올해로 학회 설립 25주년을 맞는다.

도로 분야를 학문연구의 대상으로 하는 국내 최고 학회로 개인회원 약 4천여 명과

법인회원 80여 개 기관이 학회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와 결합하는 미래형 X-도로 등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여 도로 분야 발전을

앞장서 이끌겠다는 최준성 한국도로학회장을 만나 학회 비전 등을 들어본다.

대담 ·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회장님,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월간 『교통』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교통』 독자 여러분, 만나 뵈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한국도로학회 차기 회장으로서는 학술 부문을 주관하고, 올해에 제16대 회장으로 취임한 인덕대학교 최준성 교수입니다. 저도 월간 『교통』을 자주 보던 독자 중 한 사람이었는데요, 평소 즐겨 읽던 저널에서 인터뷰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한국도로학회는 1999년도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도로를 대표하는 학회로서, 우리나라의 도로산업과 정책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월간 『교통』과 함께 우리 학회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회장님께서도 한국도로학회 창립 멤버로서 학회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도로학회

의 역사, 구성, 역할 등 학회에 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학회는 1999년 ‘한국도로포장공학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하여 2004년 ‘한국도로학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올해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한국도로학회 창립부터 회원으로서 각종 위원 활동과 함께 학회의 작은 일부터 이사, 감사, 부회장 등 임원으로서 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학회에 봉사해왔고 누구보다도 우리 학회에 대한 애정이 크다고 자부합니다.

한국도로학회를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학회는 각종 도로와 공항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학문과 기술, 도로시설물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가사회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는 11개의 전문분과위원회와 14개의 전문연구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으며, 개인회원 약 4,000여 명, 법인회원 80여 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회는 도로 분야 기술자들에게 도로 및 공항의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고 새로운 도로 분야 기술과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도로 혜택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넓히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도로포장, 도로안전, 도로시설물 등 도로와 관련한 모든 학문 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도로에 관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인 학회지와 논문집 발간 및 봄·가을 학술대회 개최, 도로정책포럼, 도로기술 시리즈 도서발간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999년 설립된 한국도로학회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도로 분야 최대 규모의 학회입니다. 도로에 관한 학문과

기술의 발전, 정책개발 및 정보교류를 통하여 사회와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데요, 관련하여 그간의 성과와 주요 학술사업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학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사회와 국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운 도로 분야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도로 관계 기관들에 전파하고 있으며, 국민께도 도로가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 이해를 넓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학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결과물은 학술지와 논문집 발간입니다. 한국도로학회는 도로 기술과 도로정책을 회원들에게 알리는 학회지를



집무실에서 대담 중인 최준성 한국도로학회 회장(왼쪽)과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정기적으로 4회 발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에는 100회를 맞이하여 100회 기념 학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신 기술 트렌드인 도로 지하화 관련 논문 등을 포함하여 도로 및 공항 관련 논문들을 묶어 격달로 논문집 형태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재활용 포장기술'과 '도로 유지관리기술' 등을 포함한 도로 기술발전과 도로정책 제안 등의 기술 도서들을 발간하였으며, 특히 도로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도로 이야기』 발간과 함께, 올해는 새로운 모빌리티와 도로 인프라 관련 도로기술 시리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회원들과 정책 결정 관계자분들께 도로 미래 기술을 공유하고

자 2021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유튜브의 도로정책포럼도 격달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최근의 쟁점과 국민이 도로에 바라는 행복욕구에 초점을 맞춘 도로정책 부분에 집중해서 진행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주요 학술사업 측면에서는 2023년 5월 국회에서 우리 학회 주관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대비한 국가도로망 디지털트윈 구축」을 주제로 국토교통부, 국토교통위원회, 한국ITS학회,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참여하는 포럼을 진행하여 디지털 트윈기술을 구축하기 위한 개선 및 활용 방안과 적용 사례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10월, 23회째를 맞은 가을학술대회

“미래형 X-도로는 국민의 행복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개념이 녹아든 새로운 도로 개념으로, 도로의 특성을 eXchange 하고자 하며 G(reen)X, E(xpress)X, D(igital)X 등 도로 역할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키워드입니다.”





“우리 학회는 2024 봄 학술대회에서 의미 있는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지하도로에 대한 개념 정립 방안과 현재와 미래의 지하도로 정책들, 그리고 운전자의 위험과 대책 방안, 지하도로의 안정적 운영 등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에서는 'Smarter Road, Safer Life'라는 주제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의 품질 향상, 도로 인프라에 대한 디지털 전환과 모빌리티와 UAM의 도로와의 통합, 도로의 노선설계 절차 및 사업비 적정성,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유지관리 방안과 국가재난에 대한 도로의 대비 등 사회 이슈에 관한 세션에서 기술교류와 함께 각종 전시 부스를 통해 참여기업들의 기술력을 공유하였습니다. 약 38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하여 171편의 논문 발표를 통해 도로 분야의 학술교류에 선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성황리에 잘 마쳤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참여해주신 우리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 2024 한국도로학회 봄 학술대회가 개최되었지요. 이번 학술대회의 분위기와 주요 관심사였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이였을까요?

2024년 한국도로학회 봄 학술대회는 오전엔 특별세션을, 오후엔 총회 및 학술대회 발표가 진행되어 약 200명이 등록, 참석하여 3개의 세션과 포스터 세션에서 최신 연구 53편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특별히 오전에는 올해 우리 학회가 도로정책적으로 국토부와 함께 가는 첫 단추로서, 국토부와 5대 청이 모두 참석해 “도로, 미래를 행복하게 하다”라는 모토와 『새로운 지하도로와 새로운 미래도로 무엇이 필요한가?』의 주제 속에 약 140명이 참석하여 특별세션을 진행하였고 분위기는 매우 좋았습니다. 특별세션 정책 세미나는 지하도로에 대한 개념정립 방안과 현재와 미래의 지하도로 정책들과 함께 운전자의 위험과 대책방안, 지하도로의 안정적 운영 등에 관하여 발표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준비와 함께 디지털 전환 가속화가

도로 인프라에 미치는 영향과 디지털·초고속 모빌리티가 견인하는 미래형 X-도로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미래형 X-도로는 위에 말씀드린 국민의 행복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개념이 가능한 새로운 도로개념으로, 도로의 특성을 eXchange 하고자 하며 G(reen)X, E(xpress)X, D(igital)X 등 도로의 역할의 다양성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는 새로운 미래를 대비하여 도로분야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 선출되신 지도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의 소회와 함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면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국도로학회는 출범 일자를 기준으로 올해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제가 학회장으로 선출된 시점부터 코로나19 엔데믹을 맞아 오프라인 모임이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는 차기 회장으로서 학술 부문을 책임지고 맡았는데, 봄·가을 학술대회뿐만 아니라 우리 학회 회원님들 간 교류를 위한 마당을 만들어 드리고자 동호회들을 다시 진행하고 발굴하여 출범식과 발대식 등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에, 학회 활동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활동 재개의 기반을 다졌다면, 올해는 그 기반을 토대로 본 회장으로서 본격적으로 새로운 관련 학문과 기술을 제시하고, 도로 분야 기술자들에게 도로 및 공항의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파하며, 국민을 대상으로 도로가 주는 혜택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로 창립 25주년을 맞는 한국도로학회는 한국을 대표하는 도로 분야 학술단체입니다. 학회에서는 미래에 펼쳐질 도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봄 학술대회에서 주요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현재 도로 발전을 위해 최근 포럼 결과들을 토대로 이슈와 비전, 전략 등을 담은 도로정책 요약집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도로기술 시리즈 도서를 준비하고 있으며, 특히 도로의 얼굴인 도로포장 분야의 기술자 양성을 위한 민간자격증 도입을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도로기술 전파와 도로정책 발굴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정례 만남을 추진해 활발한 정보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하여 학회의 학술적인 발전을 토대로 학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도로 분야의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우리 학회의 목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도로학회 사업 추진에서 한국도로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아주 친밀하고 유기적인 협조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 기관이 더욱 활발히 협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도로’와 ‘교통’은 서로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국도로학회와 한국교통연구원은 서로에게 없어서 안 되는 존재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였을 때 한국도로학회는 도로 및 교통 분야에 특화된 전문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한국교통연구원 구성원분들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고 우리 학회에 대해 모르는 분들이 없도록 더욱 홍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통과 홍보를 통해 두 기관의 도로 및 교통 분야 전문성을 높이고, 도로연구 및 정책에 관한 지속적인 공헌을 강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교통수단별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통연



집무실에서 포즈를 취한 최준성 한국도로학회 회장(오른쪽)과 유정복 한국교통연구원 연구부원장

구원 도로교통연구본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나, 도로에 요구되는 수요가 점차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도로교통연구본부뿐만 아니라, 모빌리티전환연구본부, 광역·도시교통연구본부, 민간투자SOC관리지원단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한국교통연구원과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각 분야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자유롭게 토론할 기회를 많이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더 자주 한국교통연구원을 방문하고, 두 기관이 함께 학술적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합동세미나 등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우리 한국도로학회의 노력에 대해 한국교통연구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인터뷰 자리를 만들어주신 월간 『교통』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